사이로

CASE REPORT

중등

사이로 탐정 사무소 7차시 활동지

주변 자원 탐색

보다 서다 잇다

EP. 07 변화의 시작, 신호를 잡아라

이름 _____ 학년/반 _____

학습 목표

1.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구에게 요청할 수 있는지 알아봐요.
2. 상황에 맞는 도움을 선택하고 연결하는 방법을 알아봐요.

핵심 개념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주변 사람이나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가까운 사람, 학교 안의 어른, 학교 밖 전문기관 등 상황에
맞는 도움을 찾아 연결하는 것이 중요해요.

CASE 1. 나의 이름은

게임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나누던 수빈이와 다솔이.
그런데 의견에 대한 말이 점차 다솔이를 향한 공격적인 말로 바뀌었고
수업이 끝난 뒤에도 계속되었어요.



MISSION 01 언제 도움을 연결해야 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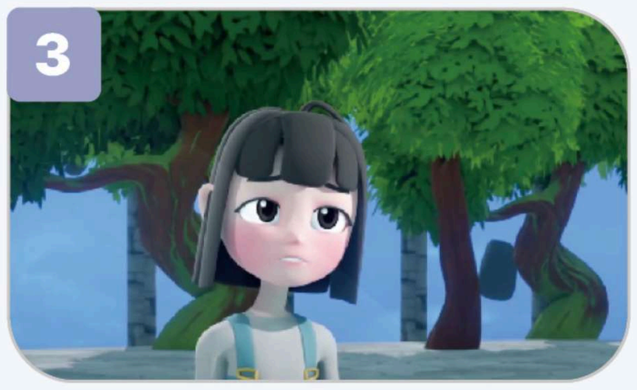
Q1 상황 카드를 보고 단순한 의견 충돌을 넘어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신호를 모두 찾아 ○표 해 보세요.



토론 중 수빈이의 말이
"네가 뭘 안다고 아는 척이야?"와 같은
공격적인 말로 바뀌었어요.



수업이 끝난 뒤에도 주변 친구들과
다솔이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었어요.



온라인 게임에서도 다솔이가
"그만하고 싶어."라고 했지만
상황이 계속되었고 이후 학교에 나오지 않았어요.



수빈이와 다솔이는
게임에 대한 의견이 달랐어요.

Q2 Q1의 신호가 계속 나타날 때, 주변 친구들이 할 수 있는 판단으로 가장 알맞은 것 한 가지를 골라 보세요.

- ☐ 친구들 사이의 일이므로 당사자끼리 해결하도록 지켜본다.
- ☐ 다솔이가 직접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기다린다.
- ☐ 상황이 계속되고 다솔이가 학교에 나오지 않아 다른 도움을 연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 ☐ 누가 더 잘못했는지 먼저 확인한 뒤 도움을 연결할지 결정한다.

CASE TIP 상황의 반복성과 친구의 변화를 살펴보면 도움이 필요한 순간을 알아차릴 수 있어요.

MISSION 02 누구에게 도움을 연결할까?

CASE 2. 계속되는 익명 메세지

하린이의 SNS 익명 질문함에 외모를 평가하거나 기분 나쁘게 하는 글이 **며칠째 올라오고 있어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비슷한 글이 계속되자 하린이는 게시물을 모두 지우고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횟수도 줄었어요. 소라는 하린이가 평소보다 말이 줄고 익명 메시지를 계속 신경 쓰는 모습을 보았어요.



Q3 하린이의 상황에서 도움을 연결할 수 있는 곳을 모두 선택해 보세요.



❶ 믿을 수 있는 친구나 보호자



❷ 담임·상담 선생님 등 학교 안의 어른



❸ 학교 밖 상담·신고 기관



❹ 익명 글을 쓴 사람을 직접 찾아줄 친구

Q4 Q3에서 찾은 도움 자원 중 하린이에게 필요한 두 가지를 고르고 각각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적어 보세요.

도움 자원 (Q3의 번호를 써주세요!)	받을 수 있는 도움
❶ ( )	♥ _____
❷ ( )	♥ _____

Q5 하린이가 학교 안의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한 뒤에도 익명 메시지가 계속되고 있어요. 이때 도움을 요청 하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 중 두 가지를 골라 보세요.

☐ 상황이 달라지는지 살펴보고 필요한 내용을 다시 알린다.

☐ 현재 도움만으로 어렵다면 보호자나 전문 상담·신고 기관의 도움도 함께 연결한다.

☐ 이미 한 번 도움을 요청했으므로 더 이상 알리지 않아도 된다.

☐ 상황이 저절로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

CASE TIP 도움이 필요하다면 상황에 맞는 사람이나 기관을 찾아 연결해 보세요.

MISSION 03 내 주변 자원 찾기

Q6 실제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을 떠올려 보고 알맞은 칸에 적어 보세요.

❶ 가까운 사람	❷ 학교 안 도움	❸ 학교 밖 도움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예) 친한 친구, 가족	예) 담임 선생님, 상담 선생님, 보건 선생님, Wee클래스	예) 보호자, 청소년 사이버상담센터(1388) BTF푸른나무재단(1588-9128)



사건 리포트 작성 완료!

도움이 필요한 신호를 알아차리고 상황에 맞는 사람이나 기관에 도움을 연결하는 방법을 알아봤어요. 앞으로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내 주변의 도움 자원을 떠올리고 필요한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교육부 16개 시도교육청 BTF 푸른나무재단